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대의원회의

2001년 2월 9일 마린센터 국제회의장

祝 辭



海洋水産部長官

존경하는 박태길 위원장님과 대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하여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과 해양수산관계자 여러분!

오늘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정기 대의원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우리나라 해양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오신 10만여 선원과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좁은 땅덩어리에도
불구하고 세계 8위의 선박보유국이며 세계 11위의 수산물
생산국이라는 해양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업적과 성취의 이면에는 험한 파도와 맞서
싸우며 해양역군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온 여러분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육지의 나라를 결코 작지않은 바다의 나라로
만들어 놓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며 저는 1,200여년전 패기와
기상으로 동북아 바다를 호령했던 해양민족의 피가 우리속에
면면히 흐르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친애하는 대의원 여러분! 그리고 해양수산가족 여러분!

해양의 시대이자 국경없는 무한경쟁의 시대라고 하는 21세기에 해양 전도사로서 선원 여러분의 책임과 역할은 더욱 막중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역할에 비하여 선원직에 대한 선호는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 선원 임금의 상대적 하락 등으로 인하여 크게 떨어진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지난해 정부는 선원의 최저임금을 22%나 인상하고, 선원복지고용센터의 설립을 추진하는 등 미흡 하나마 선원의 근로환경과 복지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부산과 인천의 선원복지회관 건립을 위하여 정부에서 20억원을 지원한 이후, 현안사항이었던 선주의 복지회관 출연금 문제에 대하여 노사간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게 된 것도 가시적 성과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친애하는 대의원 여러분! 그리고 해양수산가족 여러분!

정부는 금년 한해에도 더욱 내실있고 진일보한 선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특히 선원복지의 향상이 선원수급의 안정을 가져오는 근본이며, 해양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하는 밑거름이 된다는 인식하에 복지정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한해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로, 「선원복지고용센터」를 늦어도 금년 상반기중에 설립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복지사업은 물론 취업알선, 개인고충 상담까지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게 될 선원복지 고용센터는 연차적으로 예산과 조직을 확충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선원복지고용 전담기구로 육성될 것입니다.

둘째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재해보상보험 등 제반 사회보험의 적용에 있어서 선원직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선원 여러분의 여론을 적극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선원최저임금을 육상최저임금의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시키는 한편, 저소득 선원의 세제감면 확대를 통하여 실질소득을 향상시켜 나갈 것입니다.

셋째로, 선원병역특례 대상업체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장기 승선자의 육상직 직업전환교육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신규선원을 유치하고, 승선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가겠습니다.

넷째로, 국제기준에 적합한 해기 품질관리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선원 재교육기관을 대학 등 모든 선원교육기관으로 확대함으로써 경쟁을 통한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원직이 갖는 매력과 성공사례를 널리 홍보하고, 일관된 선원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중장기 선원수급 안정화방안」을 수립함과 아울러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선원정책 발전협의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대의원 여러분 그리고 해양수산가족 여러분 !

이상과 같은 정부의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해양수산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특히 선원의 이익을 대표하는 대의원 여러분과 조합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쌓아오신 지혜와 경륜은 우리나라를 21세기 해양부국으로 도약시키는데 더없이 좋은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그릇된 부분은 과감히 고치고, 미흡한 부분은 신속히 채워가는데 대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인 모두가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으로 서로 포용하고 화합한다면 새천년 해양부국의 꿈은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 앞에 펼쳐지리라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정기대의원대회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귀 연맹의 무궁한 발전과, 조합원 및 가족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1. 2. 9.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